

무더위 GO! GO! GO!

힐링하GO!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각광

텃밭 채소 가득 쌀피자·패러글라이딩·한옥 민박·계곡 옆 캠핑 담양·여수·곡성·영암 등 지역 특색 살린 친환경 마을 추억 선사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 경관을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힐링 명소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마을이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여수 현천3구마을은 벼 생육체험을 할 수 있고, 인근에는 YMCA생태교육관과 여자만 갯벌을 걸으며 현천마을과 달천해안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가사리 생태숲과 생태공원의 풍경은 자전거 라이딩과 산책하기에 좋다.

순천 궁각마을은 보성강 주변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이다. 농산물 수확·가공체험과 트랙터 트레일러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 어귀 배롱나무와 550년 된 당산나무 노거수는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1927년 건립된 노안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95%가 천주교 신자인 나주 계림마을은 농

산물 수확체험, 꽃고무신프린팅, 포토머그컵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담양 유촌마을은 활쏘기, 쌀엿 만들기, 패러글라이딩, 농산물 수확체험, 한과·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황덕마을에선 한옥 민박이 가능하며, 영산강 습지부터 마을 사이사이 골목을 트랙터로 누비며 다양한 쌈 채소, 오색 토마토 등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곡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한마을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계곡을 따라 자리한 하늘나리 캠핑장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백숙, 산채 나물 등으로 식사하고 농가에서 민박도 가능하다.

보성 영천마을은 계단식 차밭으로 국가 농업 유산 제11호에 등재된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마을이다. 녹차 만들기, 티 블렌딩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휴집 민박도 운영 중이다.

해남 태인마을은 마을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내거나, 떡·피자·쿠키 만들기 체험과 깨끗한 생태마을 투어도 할 수 있다. 마을에는 80년대 울드카부

터 100여대의 자동차를 전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 '한국차박물관'도 있다.

영암 신안정마을은 월출산 아래 2000년대 초부터 유기농 벼농사를 시작한 마을로, 마을 커뮤니티 공간(교육장)을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공유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로 유기농 쌀피자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용두레도농교류센터에서 숙박하고 허니라벤더밭에서 꽃을 구경하며 라벤더정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영광 한시랑마을은 주변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등 종교 성지가 많다. 마을 인근에서 서해 낙조 감상이 가능하고, 농촌문화체험관 옆 캠핑장(카라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인근 5분 거리에 있는 영광 산하치마을도 한옥체험관에서 떡메치기, 오디잼, 보리빵, 천연화장품만들기 등 체험과 숙박을 할 수 있다.

평림담 상류지역에 자리잡은 장성 생촌마을은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마을 도랑과 생태탐방로에서 다슬기 잡기 등 체험(물놀이)을 할 수 있다. 신안군 내암마을은 매년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명소로, 전통장류제조, 유채기름짜기 체험과 팬션(수영장), 식당, 야영장 등을 연계해 이용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온열환자 막GO! 전남도 의용소방대, 마을 돌며 안전지킴이 역할 '특목'

540개대 1만1000여명의 전남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
이들은 도내 각 시와 읍면에 일일 순찰조를 편성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폭염 취약 시간에 마을을 순찰하며,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야외 작업자의 귀가를 독려하고 있다.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당부와 폭염 대처 교육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가축 살리GO! 전남도,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농가에 환풍기 가동을 비롯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섭씨 26.2도로 평년(24.6도)보다 1.6도 높았으며,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런 가운데 8월 초 현재까지 폭염에 따른 전남 지역 가축 폐사 신고는 71호, 6만1803마리(닭 17호5만2997마리·오리 5호 7652마리·돼지 49호 1154마리)에 달해 추정 피해액이 5억7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7월 시·군, 관계 부서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도·시·군·축산농가 간 담당제를 운영, 폭염 특보에 따른 축사시설 및 가축사양 관리 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지속해서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또 가축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축산농가에서 가축 급수용 및 축사 분무용 물 부족 시 시군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펌프차를 활용해 물을 공급하도록 소방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또 올해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36억원,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지원 3억원, 가축 사료효율 개선제 32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8억원 등 총 17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사회서비스원, 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경영시스템·중장기 전략 등 강점...2년 연속 쾌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경영관리(45점)와 경영성과(55점) 2개 분야, 리더십·경영시스템·사회적 책임·주요사업·정책성과 등 5개 영역 총 13개 세부 지표로 나눠 평가한 가운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경영관리 40.70점, 경영성과 49.37점으로 총점 90.07점을 얻어 A등급을 받았다.

종합결과에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기관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구성원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중장기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인사관리 주요 기능별 인사제도의 내용 및 실행의 완성도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기관장의 리더십 부분에서는 기관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시·군 등 취약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 ESG경영원리 구현을 위해 체계를 수립하고 역량 강화 및 가치 공유 확산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연구 강화 ▲ESG 혁신경영 선도라는 추진전략으로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순임 작가의 '정원' 속으로

전남도 동부청사 갤러리, 30일까지 기획전...회화·설치 등 32점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동부청사 갤러리(1·2층)에서 '르 자르당(LE JARDIN) 정원'을 주제로 최순임 작가 기획전을 개최한다. 〈사진〉 최순임 작가는 전남대와 전남대학교원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국내외 개인전, 단체전 등 100여 회 경력에 있는 촉망 받는 중견 작가다. 전시명 르 자르당은 불어로 '정원'이라는 뜻이다.

기획전에선 작가의 마음속 정원을 시각화해 나타난 회화 25점, 설치작품 7점을 선보인다. 특히 2층 갤러리에 전시된 '보나의 정원'은 작가가 지향하는 삶과 내면에 있는 정원을 표현한 작품이다. 2022년 무대 위 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탄생한 가로 4.5m에 이르는 보기 드문 대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섬 매력 알렸다

충남서 '섬의 날' 행사...8개 연안 시·군과 홍보관 운영

전남도가 최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섬의 날 행사에서 8개 연안 시·군과 함께 섬 홍보에 나섰다.

제5회 섬의 날은 '우리 섬, 좋다'라는 주제로 국제 섬 포럼, 어린이 그림·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등 행사와 연안 지자체의 홍보 전시관·체험 활동 등으로 펼쳐졌다.

전남도는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과 홍보 전시관, 포토존,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요 홍보 주제는 '친구맺기 좋다(전라남도)', '섬, 낭만에 취하기 좋다(목포 외달도·교하도)', '섬, 2026년 여수에 오면 더 좋다(여수 개도·금오도)', '함께 거닐기 딱 좋다(강진 가우도)', '해남섬 일몰이 좋다(해남 팽곶곶·대섬)', '완도섬 치유하기 좋다(완도 신지도)', '힐링하러 가기 좋다(진도 접도)', '섬, 예쁜 꽃피며 걷기 좋다(신안 선도·임자도·도초도·퍼플섬)' 등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